

“다복해서 기쁨 7배... 행복이 넘쳐 난답니다”

아이기가 꿈이다

광주일보 연중기획 | DREAM 프로젝트

12살 첫째~3살 막내까지
서로 어울리며 사회생활 터득
가족 영상 유튜브 올려 추억 공유
“행복의 크기는 돈과 무관”

설 명절을 닮아 앞둔 지난 11일 만난 한경민(39)씨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는 길이었다. 밤새 쌓인 눈에 찬바람까지 많이 불어 잠깐새 불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에 살고 있는 한씨 가족은 이미 구례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다둥이네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 시책이 된 요즘시대에 7남매를 낳아 키우고 있으니 관심이 집중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자식이 많은 집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걱정스러운 시선과 달리 한씨 가족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다. 만 10년동안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아내 박지연(41)씨도, 형제가 많다보니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채워보지 못한 아이들의 얼굴에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다.

“아이기 많은 집이라고 해서 명절이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다둥이네의 설맞이를 궁금해하는 기자에게 돌아온 답변이다. 박씨는 “다르다고 한다면 가족 수가 많아서 음식을 조금 더 하는 정도다”며 “예전에 시어머니 손이 커서 준비할 것이 많았는데 요즘엔 차례상 음식도 많이 줄어졌다”고 전했다.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본가는 차로 10분 이내 거리다. 2남 1녀중 둘째인 경민씨네 가족이 9명, 부모님, 형님네 가족 4명, 결혼 전인 여동생까지 모두 모이면 열여섯 대가족이다.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둘러 앉아 떡국을 나눠 먹는 것도 여느집과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다면 실재없이 재질거리며 할아버지 할머니께 재롱부리는 귀여운 아이들이 많은 정도다.

서울까지 올라가 생활하던 경민씨가 문득 결혼 후 고향으로 온다고 할 때 걱정을 많이 하셨던 아버지도 지금은 손자들 재롱을 자주 보고 싶어하고 아들의 농사도 적극 응원해 주신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경민씨 아이들은 오늘도 재질재질 시골백적하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첫째 아들 찬희(12)와 연년생인 둘째 아들 준희(11), 셋째 딸 율희(9)까지가 초등학교생이다. 넷째 아들 재희(7)와 다섯째 딸

소희(5)는 유치원에 다니고 막내 딸 쌍둥이 민희(3)와 채희(3)까지 ‘희’자 돌림 7남매가 한씨 가족의 보물들이다.

“처음부터 남편이 자식 욕심이 많았어요. 결혼 할 때 네 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둘을 낳고 셋째를 낳았는데 딸이 정말 예쁜 거예요. 딸 욕심이 생겨서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들이 태어났고 다섯째가 기대했던 딸이었는데 또 그렇게 예쁠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여섯째를 기다렸고 쌍둥이가 찾아온 거죠.” (박지연씨)

“자녀 욕심인건 모르겠어요.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아이들끼리도 어느 정도 사회를 형성하기를 바랐어요. 그들끼리 서열이 너무 심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 지내려면 최소한 4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어요. 아이는 부모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노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방관자 또는 조력자로 남아야죠.” (한경민씨)

젊은세대에게 이들 부부의 취미는 아이들의 모습을 휴대전화 영상에 담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리는 일이다. 이날도 집 앞에 쌓인 눈을

열심히 굴러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굴린 눈덩이 4개가 모여 키다리 눈사람이 됐고 눈사람 옆에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이 모두 영상으로 담겼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다같이 모여 유튜브에 올린 가족의 영상을 함께 감상한다. 별일 아닌 평범한 일상에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진다.

지난 여름 쌍둥이들의 돌 기념 사진은 엄마 박씨가 직접 나섰다. 인근 치즈랜드로 나가 셀프 촬영을 했는데 소품용 집이 많아 2박3일 여행용 집으로 착각할 만한 양이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만족. 스튜디오에서 찍는 사진보다 ‘백만배’ 질나왔다는 주위 반응도 좋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댁 가는 길이 즐거운 7남매 한경민씨 가족. 왼쪽부터 둘째 준희, 쌍둥이 민희, 아빠 경민씨, 셋째 율희, 쌍둥이 채희, 엄마 박지연씨, 다섯째 소희, 넷째 재희, 첫째 찬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씨가 영상을 공유 사이트에 올리는 건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다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주위에 전파해주고 싶은 마음도 크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가족과 어울려 사는 모습에 대한 상(像)이 예전 거부장적인 모습이 사진처럼 각인돼 있어서. 지금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가정상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이’하면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 생각일 뿐이에요. ‘아이와 즐겁게 노는

모습’이 떠오른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갖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행복의 크기는 돈과 비례하지 않아요”고 강조하는 한씨는 아이들이 삶을 통해 재미를 찾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고 행복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각자가 좋아하는게 다르고 잘하는게 달라요. 아빠와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할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기 바랍니다. 행복의 기준도 다 다르잖아요. 뭘 해서 즐거운지,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TÉLÉSIS Paris

TEL.062 223 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텔레시스스는 자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시스스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렉터 & 브랜드 운영